

# 해외 상춘객 잡아라... LCC, 봄철 항공권 할인 大戰

## 진에어

홍콩 왕복 20만8900원부터

## 티웨이항공

후쿠오카 편도 4만7300원부터

## 에어서울

보라카이 편도 12만800원부터



진에어(왼쪽)와 티웨이 항공기.



/각사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봄철 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항공사들은 인기 중·단거리 노선을 위주로 특가 항공권을 제공하는 것에 더해 할인 적용 노선을 전 노선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진에어는 오는 19일까지 홍콩관광청과 함께 홍콩 가족 프로모션 '스쿨 오브 홍콩'을 진행한다. '스쿨 오브 홍콩'은 홍콩으로 가족여행을 계획 중인 고객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모션이다. 특가 항공권과 홍콩의 대표적인 여행상품 이용권 등의 혜택을 만

나볼 수 있다. 탑승 기간은 3월 25일부터 7월 20일 사이 운항하는 항공편을 대상으로 하며, 왕복 총액 최저 운임은 20만8900원부터다. 항공권 예매는 3월 19일까지 진에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하면 된다.

티웨이항공은 3월 9일까지 봄맞이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상 노선은 인천과 대구·제주·부산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이다. 탑승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 간이며 예약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편도 총액운임(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

이용료 포함)은 ▲후쿠오카 4만7300원 ▲오사카 5만6200원 ▲도쿄(나리타) 5만8400원 ▲마카오 7만7000원 ▲홍콩 8만2700원 ▲가오슝 9만3400원 ▲방콕 14만7300원부터다.

에어부산은 오는 14일까지 부산발 홍콩·마카오·가오슝 노선과 부산·대구발 타이베이 노선 대상 특가 항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홍콩·마카오 노선과 타이베이·가오슝 노선은 한 번의 출입국으로 여러 도시를 관광할 수 있어 가성비 좋은 '일석이조' 여행지로 최근 국내 자유여행객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특가 항공권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합한 편도 총액 기준 10만 원부터 구매 가능하다. 탑승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에어서울은 동경·오사카·홍콩·보라카이(칼리보)·괌 등 에어서울이 운항하는 전 노선을 대상으로 얼리버드 특가를 진행한다. 탑승 기간은 벚꽃 개화 시즌이 포함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항공 운임은 편도 총액 기준 일본 ▲동경 10만1500원 ▲오사카 9만8500원 ▲시즈오카·다카마쓰·히로시마 11만5000원 ▲요나고·도야마 11만5500원 ▲나가사키·구마모토 10만

500원이다. 동남아·괌 노선은 ▲홍콩 9만3700원 ▲보라카이 12만800원 ▲코타키나발루 13만800원 ▲괌 14만7200원 ▲씨엠립 17만800원부터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6, 7월 출발하는 얼리버드 항공권을 7월까지 판매한다. 6, 7월 이벤트 진행 노선은 국내선 4개 노선 및 국제선 일본 8개노선, 동남아 7개 노선, 중국 2개 노선으로 총 21개 노선이며 편도총액기준 최저가 ▲국내선 1만7900원 ▲일본노선 6만8900원 ▲동남아노선 9만7900원 ▲중국노선 10만79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얼리버드 이벤트를 활용하면 출발 3~4개월 전인 6월과 7월 항공권을 실용적인 가격으로 미리 구매할 수 있어 이른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유용할 전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상승으로 여행객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얼리버드 이벤트로 항공권 부담은 물론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많은 고객들이 부담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주 52시간 근로기업’ 인건비 지원

### 고용부,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안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 입법이 뿌리를 내리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 감소분 보전 대책을 관계부처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증가 노동자 수 1명당 1년에 한해 월 최대 80만 원,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213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고용부는 또 일터혁신 컨설팅, 노동시간 단축 도입 매뉴얼 제작·배포,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돕고자 업종별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중소기업 인력매칭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질적성장 나선 시진핑 2기 우리기업도 차별화 나서야”

### 전경련 ‘중 양회 이슈점검 좌담회’

‘고속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목표를 바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2기를 맞아 우리 기업의 중국에 대한 전략도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에서 ‘메이드 포 차이나(Made for China)’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18 중국 양회 이슈 점검 좌담회'를 개최하고, 시진핑 2기의 경제정책 방향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6%대로 둔화되며 고속성장 대신 공급 구조개혁 통한 질적성장으로 목표를 전환했다”며 시진핑 1기와 2기 경제운영 방향이 달라졌음을 강조했다.

양 위원은 ‘공급 구조개혁’을 대표적인 정책으로 과잉공급 해소와 부채축소 등 쟁

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 퇴직 ▲신성장 동력 확보 ▲조세 감면 등 기업 비용절감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철 산업연구원 박사는 “중국은 개혁을 통해 산업 비효율을 제거하고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등 저임금·고오염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와의 경쟁구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 산업은 중국과 차별화가 필요하며 중국이 강조하는 혁신정책을 한국이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환우 코트라 중국사업단 담당관은 “사드 제재 완화와 더불어 중국의 개혁개방 확대 및 포용적 대외정책을 감안할 때 중국내 비즈니스 여건은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녹색발전, 스마트시티, 농촌개발 등 지역개발 관련 시장에서 사업 기회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은미 기자 21cindun@

## 최흥식 “업계이익 우선한 펀드 관행 고쳐야”

(금융감독원장)

### 투자자 중심 영업행위준칙 제정 등 불건전 운용·판매행위 점검 강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6일 “펀드 판매나 운용과정에서 투자자 이익보다 업계의 편이나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장 및 15개 자산운용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하며 “상품개발, 판매, 운용 및 사후관리 등 모든 업무단계에서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원칙을 확립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도 협회와 공동으로 ‘투자자 중심의 펀드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불건전 운용·판매행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최 원장은 “채권가격 하락에 따른 채권형펀드나 머니마켓펀드(MMF)의 환매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펀드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부동산·특별자산 등 해외자산 투자시 사업성심사와 전문인력 확보, 환위험 관리 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고객자산 및 회사재산 운용이나 투자자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 과정에

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거나 금융사고 발생우려도 있다”며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과 자금집행 점검 등에 대한 내부 통제도 신경써달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금리상승이 MMF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상시감시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올해는 한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태국 등 아시아 5개국 간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패스포트가 시행된다. 해외 자산운용사외도 경쟁해야 하는 무한경쟁 시대다.

최 원장은 “체계적인 운용철학과 시스템을 갖추고 꾸준한 인력양성을 통해 특화된 경쟁우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흥시장은 물론 호주·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으로 적극 진출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i@

## 김동연 “청년일자리 연계 보조금·세제지원 검토”

(경제부총리)

### 청년실업 문제 해결 위해 청년수당·추경 등 검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일 자리를 얻은 청년에게 직접 가는 지원방법이 효과적”이라며 “일자리와 연계한 보조금뿐 아니라 세제혜택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수당과 같은 직접지원을 고려 중이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직접지원에는 예산으로 하는 방법과 세제혜택을 바로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재정 측면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는 올해 일자리 예산이나 지난해 일자리 추경 예산을 쓰되 올해 청년일자리 추경도 꼭 필요하면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수당은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나 구조조정 문제는 특히 특정하게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풀어야 한다”며 “포퓰리즘이나 정치일정을 앞둔 선심성 지원이 아닌 경제적 이슈”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 제너럴모터스(GM)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3대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채무 실사를 위한 범위와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며 “한국GM은 빨리 실사해 결과를 바라고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꼼꼼히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